

2013년 일본의 수출 · 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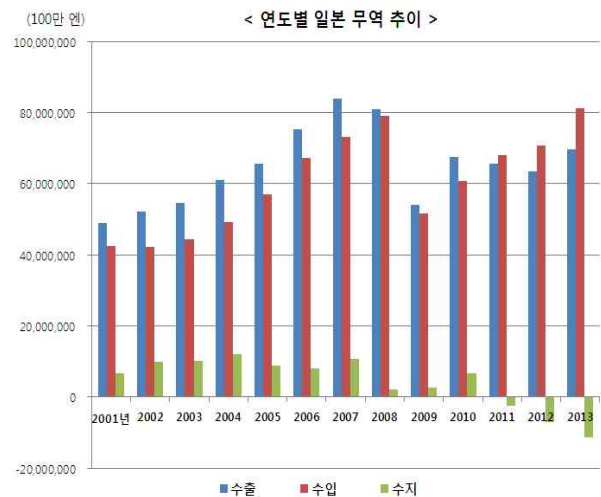
- ‘13년 일본의 무역수지는 과거 최대 적자를 기록, 엔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대보다는 수입가격이 상승한 것이 무역적자의 확대 요인
- 미국의 경기에 의존하는 일본의 수출 구조로는 향후에도 무역적자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, 이노베이션을 통한 새로운 수출 품목의 발굴과 원전 재가동 등 에너지 해결이 과제로 대두

□ 연료 수입의 증가로 무역적자 확대

- 재무성이 ‘13.1.27일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일본의 무역수지는 11조 4,745억 엔 적자(전년 대비 65.3% 증가)로 과거 최대를 기록

* 3년 연속 적자는 ‘79년 이후 최초

- 수출은 엔저효과로 3년 만에 증가, 금액 기준으로 69조 7,877억 엔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9.5% 증가하였지만, 물량기준으로는 1.5% 감소
- 수입은 4년 연속으로 증가, 금액기준으로 과거 최대인 81조 2,622억 엔을 기록 전년 대비 15.0%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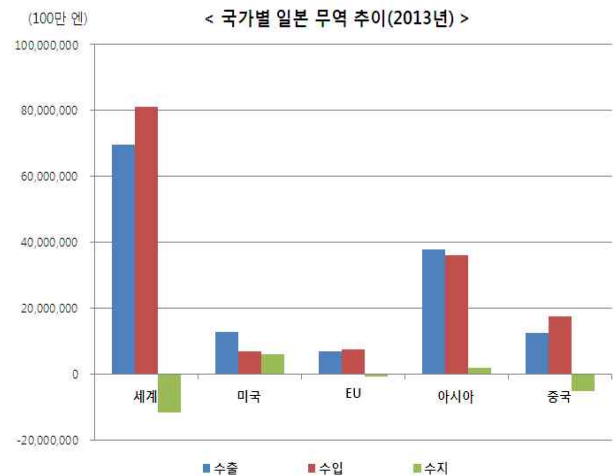
- 무역적자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전년 대비 21.8%의 엔저·달러고가 진행된 것으로 엔화 표시 수입액이 증가
 - 수출 증가 품목은 자동차(12.9%), 유기화학물(38.8%), 광물성연료(49.9%) 등
 - 수입 증가 품목은 원유(16.3%), 액화천연가스(17.5%), 반도체 등 전자부품(37.4%) 등
- 일본의 수출 구조는 해외생산이 증가한 ‘전기기기’는 감소하는 한편, ‘자동차’ 수출이 증가한 것이 주요 특징

- 전기기기의 '13년 무역수지는 1조 7,472억 엔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, 전년 대비 1.2조 엔 감소
- 자동차는 9조 3,293억 엔의 흑자를 기록하여, 전년 대비 1조 엔 증가

□ 국가별 무역 추이

- 무역 상대국은 對신흥국 수출보다 對미 수출이 증가, '13년 對미 수출은 12조 9,310억 엔으로 5년 만에 對中 수출을 상회
 - * 對미 무역흑자는 12개월 연속 증가

- '13년 對中 무역적자는 전년보다 42.3% 증가한 5조 215억 엔으로 과거 최대를 기록
- 對中 수출은 유기화학물, 자동차부품 등이 증가하였고, 금속가공기계는 작년보다 42.0% 감소
- 對中 수입은 통신기기(37.0%), 의류(17.2%), 전산기류(21.7%) 등이 증가



- 對EU 무역은 '13년 수출이 7조 7억 엔으로 2년 만에 증가(7.7%), 수입은 7조 6,494억 엔으로 4년 연속 증가(15.2%)
 - '13년 일본의 대EU 무역수지는 6,487억 엔으로 과거 최대 적자 기록
 - 수출 증가 품목은 광물성연료, 원동기 등이고, 수입 증가품목은 의약품, 자동차 등
- 일본의 對韓 무역수지는 2조 187억 엔 흑자로 전년대비 20.3% 증가

연 도	대한 수출(억엔)	대한 수입(억엔)	무역 수지(억엔)
2012	49,113	32,337	16,776
2013	55,153(12.3%)	34,966(8.1%)	20,187(20.3%)

□ 시사점

- 생산거점의 해외이전과 신흥국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일본의 무역은 엔저 상황에서도 수출물량이 감소하는 상황
 - 2005~2006년의 엔저 때에는 수출이 엔 베이스 수출이 15~20% 증가하였는데, '13년에는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는 약 10% 수준
 - 산업공동화 심화, 정보통신기기, 의류·섬유제품의 수입 증가 등 일본 제조업의 구조가 변화되어 환율 효과에 의존하는 전략으로는 수출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이노베이션에 의한 수출품목 발굴이 과제
- 일본의 민간조사기관은 '14년 이후 무역적자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, 4월에 소비세 인상으로 내수가 위축되어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SMBC닛코증권은 '16년에 무역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, 원전 정지가 장기화되면 무역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음
- 14년에도 엔저 영향으로 대일 무역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
 - 스마트폰 등 소위 한류상품의 대일 수출이 급격히 감소되어 새로운 수출 품목의 발굴 등 수출 산업을 육성할 필요

<참고자료>

재무성 보도자료(2014.1.27), 닛케이신문(2014.1.27./28)

[참고] 일본의 무역 추이

< 월별 무역 추이 >

(단위 : 100만 엔, %)

	수출	증가율	수입	증가율	수지	증가율
2012년 12월	5,298,547	-5.8	5,944,295	1.9	-645,748	210.0
2013년 1월	4,798,574	6.3	6,432,116	7.1	-1,633,542	9.6
2월	5,283,109	-2.9	6,064,454	12.0	-781,345	—
3월	6,270,972	1.1	6,637,916	5.6	-366,944	348.4
4월	5,776,616	3.8	6,661,451	9.5	-884,835	70.7
5월	5,766,693	10.1	6,764,842	10.1	-998,149	9.9
6월	6,061,046	7.4	6,242,758	11.8	-181,712	—
7월	5,960,500	12.2	6,989,991	19.7	-1,029,491	94.8
8월	5,782,921	14.6	6,750,779	16.1	-967,858	26.0
9월	5,971,928	11.5	6,909,707	16.6	-937,779	65.0
10월	6,104,361	18.6	7,201,027	26.2	-1,096,666	97.2
11월	5,900,427	18.4	7,194,511	21.1	-1,294,084	35.2
12월	6,110,510	15.3	7,412,623	24.7	-1,302,113	101.6

주 :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

< 연도별 무역 추이 >

(단위 : 100만 엔, %)

	수출	증가율	수입	증가율	수지	증가율
2001년	48,979,244	-5.2	42,415,533	3.6	6,563,711	-38.7
2002년	52,108,956	6.4	42,227,506	-0.4	9,881,450	50.5
2003년	54,548,350	4.7	44,362,023	5.1	10,186,327	3.1
2004년	61,169,979	12.1	49,216,636	10.9	11,953,343	17.3
2005년	65,656,544	7.3	56,949,392	15.7	8,707,152	-27.2
2006년	75,246,173	14.6	67,344,293	18.3	7,901,880	-9.2
2007년	83,931,438	11.5	73,135,920	8.6	10,795,518	36.6
2008년	81,018,088	-3.5	78,954,750	8.0	2,063,338	-80.9
2009년	54,170,614	-33.1	51,499,378	-34.8	2,671,236	29.5
2010년	67,399,627	24.4	60,764,957	18.0	6,634,670	148.4
2011년	65,546,475	-2.7	68,111,187	12.1	-2,564,712	—
2012년	63,474,572	-2.7	70,688,632	3.8	-6,941,060	170.6
2013년	69,787,657	9.5	81,262,175	15.0	-11,474,518	65.3

주 : 증가율은 전년 대비

< 국가별 무역 추이 >

(단위 : 100만 엔, %)

	수출	증가율	수입	증가율	수지	증가율
세계	69,787,657	9.5	81,262,175	15.0	-11,474,518	65.3
미국	12,931,038	15.6	6,811,251	12.0	6,119,787	19.8
EU	7,000,667	7.7	7,649,413	15.2	-648,746	360.5
아시아	37,875,872	8.7	35,965,572	14.9	1,910,300	-46.2
중국	12,628,688	9.7	17,650,233	17.4	-5,021,545	42.3

* : 아시아는 중국, 홍콩, 대만, 한국, 싱가포르, 태국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베트남, 인도

** : 증가율은 전년 대비

자료 : 재무성